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 “반탁운동의 후예들”과 한국의 우파 문단

공 임 순
(서강대학교)

-
- I. 5·16쿠데타와 ‘탁치/애국’ 논쟁의 재연
 - II. 당의 문학과 인간의 문학-‘애국’ 담론의 진초전
 - III.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반탁운동의 후예들”과 민족/순수의 타자화 전략
 - IV. 우파 문단의 문학사, 그 정전화의 욕망-맺음말을 대신하며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9530). 더불어 이 논문에 대해 여러 제언을 해주신 역사학 대회의 토론자와 심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투고일: 2016. 2. 12. ● 심사일: 2016. 2. 17. ● 게재확정일: 2016. 3. 15.

요약

5·16쿠데타 직후 최초의 필화사건이 발생한다.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박계주의 장편소설 『여수』가 그 대상이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을 모델로 한 찬탁 지지와 이승만에 관한 애국자형상의 재고였다. 4·19의 혁명적 분위기에 힘입은 박계주의 문제제기는 그러나 5·16군정에 의해 철퇴를 맞으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잠복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내상을 보여주었다. 집단적 정념과 운동이 휩쓸고 간 1946년 탁치와 애국 논쟁이 그것인데, 본고는 한국 우파 문단의 자기 정립이 바로 이 탁치와 애국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병준의 “3·1운동의 후예들”을 원용한 “반탁운동의 후예들”이라는 개념을 재설정해 보았다. “반탁운동의 후예들”은 한국 우파 문단의 기원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어야 할 용어이다. “3·1운동의 후예들”을 뛰어넘는 이 “반탁운동의 후예들”은 좌익 문단과의 격렬한 대결 의식을 선보이며, 문학 장의 언어와 논리를 만들고 재구성해 나갔기 때문이다. 박종화의 ‘민족’ 담론과 김동리의 ‘순수’ 담론이 갖는 의미도 이러한 맥락 안에서 움직인다. 본고는 진정한 “반탁운동의 후예들”인 김동리가 박종화의 ‘민족’ 담론을 견인하는 속에서 자신의 ‘순수’ 담론을 부단히 재교정해 나갔음을 밝히는 한편, 이 우파 문단사가 문학사 및 정전화의 욕망과 맞물려 문학 제도와 매체 그리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까지 여전히 통어하고 있음을 반성적으로 되짚고자 했다.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 “반탁운동의 후예들”과 한국의 우파 문단

주제어: “반탁운동의 후예들”, 탁치 논쟁, ‘애국’ 담론, 박종화, 김동리, 조연현, 민족문학, 순수문학, 박계주의 ‘여수’ 필화사건, 우파 문단사와 문학사, 정전화의 욕망,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 조선청년문학가협회(청문협)

I. 5·16쿠데타와 ‘탁치/애국’ 논쟁의 재연

한국 사회에서 ‘애국’ 담론이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변성된 시점은 언제일까? 그 기원을 찾자면야 근대 초, 아니 원형적 민족주의라 할 근대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애국’ 담론은 근대 국민국가의 설립을 배제하고서는 논해질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방과 더불어 근대 국민국가의 설립이 가시화되는 신탁통치 국면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960년 4·19혁명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5·16쿠데타 직후 하나의 필화사건이 발생한다. 주지하다시피 5·16쿠데타 직후 군부세력이 구질서의 본보기로 삼았던 것은 깡패와 용공세력이었다. 이 대대적인 검거의 와중에 A급 거물깡패로 분류되어 이정재와 함께 당대 문화계를 주름잡던 임화수가 처형되었다.¹⁾ 반공예술인단장으로서 전권을 휘둘러온 임화수의 처형은 관제 행사의 단골 배역이었던 문화계 전반에 대한 4·19혁명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반하며, 어떤 식으로든 그 재편과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는 문충(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의 약칭, 이후 문충으로 통일)과 임화수의 연루설이 불거진 문학계도 예외는 아니었다.²⁾

-
- 1)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글, 2014, 「빈곤의 포비아, 순치되는 혁명과 깡패/여공의 젠더 분할」, 『여성문학연구』 32에서 지적한 바 있다.
 - 2) 임화수와 문충 간의 연루설은 4·19 이후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독설의 변명」, 『경향신문』, 1961년 1월 17일에서 김선태는 “임화수와 같이 일자무식이요 깡패 출신인 자가 문충최고위원 자리를 노린다는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되었었고,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문화계의 일부 중진들이 이러한 운동을 일언반구 없이 좌시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임화수의 제명 처분이니 관련성이 없느니라 하는 따위의 변명”을 일삼는 문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광주, 「애국(愛國)·애전(愛錢)·애당(愛黨)·애권(愛權)」, 『경향신문』, 1960년 5월 5일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애국은 애전과 애권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애국 담론의 변질이 강도 높게 비판된다.

이기봉을 찬양한 ‘만송족(晩松族)’이라는 불미스러운 이름만을 남긴 채 자진 해체의 길을 걸은 문총 산하의 자유문협(한국자유문학자협회의 약칭, 자유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며 만송족의 대다수를 차지한 문학단체)에 뒤이어 5·16군부세력은 문단 쇄신과 정화의 요구를 전용하는 형태로 모든 문학단체를 강제로 통폐합시켰다. 이 결과로 탄생한 거대 조직이 바로 한국문인협회였다.³⁾ 이 거대 공룡의 재탄생은 역으로 이른바 ‘만송족’들을 구제하는 효력을 낳게 되지만, 이보다 앞서 향후 문학계의 방향타가 되어준 사건은 다름 아닌 5·16쿠데타 이후 최초의 문단 필화사건으로 기록된 「여수(旅愁)」의 게재 중단이었다. 대표적인 반공 문인이자 월남 작가로 대중적 명성을 누리던 박계주의 신문연재소설 「여수」의 한 장면이 문제시된 것인데, 그 문제의 내용이란 다음과 같았다.

“춘우는 문득 고하 송진우를 생각했다. 그는 신탁통치를 찬성했기 때문에 암살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 송진우의 의견대로 오 년 간의 국제신탁통치를 받았던들 오년 뒤엔 국제기구인 UN에 의해 오스트리아처럼 통일되었을 것이다. 국제신탁통치를 하게 되면 북한 남한으로 양단되지 않은 채 몇 개 통치국가들이 남북을 공동 감시하며 공동 통치하기 때문에 양립된 불가침의 군정은 없었을 것이다. 신탁통치를 반대한 이승만·김구·이시영 등의 인사들은 독립투쟁을 한 애국자이기는 하지만 앞을 내다보거나 앞을 저울질할 줄 아는 정치가가 못 되는 반면 송진우는 독립투쟁은 하지 못하였을망정 앞을 내다보는 구안의 정

3) 4·19 이후 만송족(혹은 만송작가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상원, 「문단에 보내는 공개장」, 『동아일보』, 1960.5.8-5.12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인간만송기」를 썼던 작가들 가운데 간단한 사죄문 하나 발표한 작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들어 철저한 반성과 자각을 촉구했다. 문필가가 아닌 문단인만이 행행하는 문단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만송족’임을 지적한 그는 문총으로 대표되는 문학단체의 해산과 새로운 조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만송족’이라 불린 문인들의 자숙과 정화의 필요성은 그러나 5·16쿠데타의 발발과 함께 무산되고 만다. 한국문인협회의 탄생은 결과적으로 이 쇄신의 대상이었던 ‘만송족’이 중앙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치가라 할 수 있⁴⁾을 것이라는 해방정국의 신탁통치 논쟁을 등장인물을 매개로 발화한 것이 문제시된 것이었다. 이 사건이 남긴 후유증으로 박계주의 집필 활동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으며 더구나 1963년 연탄가스 중독으로 그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여러 모로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그의 개인적 비극이 더해진 5·16쿠데타 이후 최초의 이 문단 필화사건은 1965년 남정현의 「분지」 사건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어 문학계를 강타했던 셈이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박정희정권의 외곽 친위부대로 기능하게 될 한국문인협회의 탄생과 더불어 적어도 문학계의 자기 보신과 연관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했다. 즉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에 앞서서 무엇을 써서는 안 되는가를 알려주는 경계선의 확정이 그것이다. 그 중의 하나로 박계주의 「여수」가 선보였던 것과 같은 반탁이 아닌 찬탁의 옹호 및 이 반탁 국면을 주도했던 이승만과 김구, 송진우 등의 참된 애국자 형상이 그러했다.

4·19혁명의 뜨거운 통일론의 열기와 만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론의 맥락에서 재연된 박계주의 탁치와 애국 논쟁은 5·16쿠데타로 인해 그 철퇴를 맞으면서 다시금 수면 아래로 잠복하고 말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민감한 뇌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재확인시켜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즉 대한민국의 자기 존립 토대와 직결된 탁치와 애국 논쟁은 그것이 설령 신문연재소설과 같은 대중문예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4) 박계주, 「여수(旅愁) 170」, 『동아일보』, 1961.11.28. 『동아일보』는 1961년 11월 29일의 「사고」에 “비록 소설이라 할지라도 지난 27일자 조간 게재 내용이 본사의 견해와 현저히 상이하므로 본사는 해(亥)소설을 금후 게재 중단”하기로 했음을 알린다. 「여수」가 부득이하게 중단된 것은 동아일보의 사시(社是)와 맞지 않아서라는 주장을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상 「여수」의 중단은 군정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은 그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때마침 연재소설 「여수」의 필화사건으로 내가 투옥되자 이 책은 일단 중지되었다가 일 개월 만에 무죄 석방되어 다시 손을 대게” 되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박계주, 1962, 「후기」, 『춘원 이광수』, 548쪽. 이 필화사건과 박계주의 개인적 비극에 대해서는 박연희, 「고(故)박계주형의 영전에」, 『동아일보』, 1966.4.9가 대표적이다.

제멋대로 언급해서도 안 되는 무언의 금기이자 국가 차원의 강력한 경고음이었다. 4·19의 혁명적 분위기에 힘입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던 반탁과 애국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렇게 다시 억압되고 봉쇄되었다. 따라서 “시도 소설도 제대로 돼먹지 않은 작품이 걸려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작가나 사회에 대해 다 같이 미안한 일”⁵⁾이라는 문단 내부의 자발적인 통제와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어갔던 것도 이의 필연적인 사태였다.

문제는 이 움직임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바로 4·19혁명을 맞아 문단 쇄신과 숙정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조연현의 표현대로라면,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그를 포함한 “문단의 주체세력”⁶⁾이 4·19혁명에 이은 5·16쿠데타가 전개되는 급변의 시기 속에서, 기사회생하며 정권의 가신그룹으로 재배치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더하여 문단 어용화의 표상이었던 ‘만송족’들 또한 문단의 일익으로 부활하며 박계주와 남정현으로 표상되는 필화사건을 공공연히 경계하는 한편, “5·16혁명의 민족혼을 기념하기 위해”⁷⁾ 문교부와 예술원이 공동 주최한 ‘5월

5) 이철범, 1966, 『필화사건』,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20년』, 정음사, 125쪽. 『해방문학20년』은 군정이 통폐합시킨 한국문인협회가 편한 것이었다. 이 책의 발간은 한국문인협회의 탄생 내력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발인 하나하나가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6) 조연현, 1977,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조연현 문학전집 I』, 238쪽. 조연현이 규정한 “문단의 주체세력”이란 “해방 직후부터 그때까지 대공문화전선을 조직·지휘해 온 문단의 투사”들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한국 우파문단의 주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회자되고 재생산되어졌다.

7) 「5월문예상을 마련」, 『경향신문』, 1962.2.19. ‘5월문예상’의 시상상은 그 이름이 말해주는 듯이 5·16을 기념하기 위한 관제 행사였다. ‘5월문예상’의 주최자와 심사자는 모두 4·19혁명 당시 비판과 청산의 대상이었던 인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 상의 파행과 곡절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참고로 ‘5월문예상’의 첫 문학수상자는 예술원회장 박종화의 심사 아래 서정주가 차지했다. ‘5월문예상’은 1965년 조연현의 수상을 끝으로 1966년 ‘5·16민족상’으로 바뀌었다. 이 첫 수상자가 ‘5월문예상’의 심사자였던 박종화였고, 그는 이 상급과 예·학술원 기금을 합쳐 1966년 월탄문학상을 제정했다. 총 36회, 연 인원 37명에 이르는 문인들이 이 상을 수여받았다.

문예상'의 후보를 한국문인협회를 통해서 추천하는 등 정권 친화적인 행보를 거듭해가게 된다. 박계주의 「여수」 파동이 빚어내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단면은 탁치와 애국 논쟁이 갖는 뿌리 깊은 상흔을 증거한다. 이는 정병준이 말했던 소위 “3·1운동의 후예들”을 뛰어넘는 “반탁운동의 후예들”⁸⁾이라고 할 만한 존재들을 되짚게 하는데, 이 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볼 예정이다. 한국 우파 문단의 형성과 재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이 “반탁운동의 후예들”이 갖는 역할과 위상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 우파문단의 두 거두인 김동리와 박종화를 매개로 탁치와 애국 담론 및 그 굴절된 서사와 기억화를 주된 논점으로 삼아 이어지는 장들을 기술해보려 한다.

II. 당의 문학과 인간의 문학-‘애국’ 담론의 전초전

2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한편의 에피소드를 먼저 살펴보자. 1903년 양계초는 미국을 여행하던 중,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차 세체에 반대하며 차를 바다에 던져버렸던 보스턴 항구를 방문한다. 여기서 그는 이

자유당 지지 강연의 ‘만송죽’으로, 한국문인협회의 2대 회장으로, 5·16민족상의 주역으로 그는 정권과 유착된 양지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문인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들이다.

- 8) 정병준, 2015, 『현 엘리스와 그의 시대』, 돌베개, 79쪽. 정병준은 이 책에서 “3·1운동의 후예들”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용어는 현 엘리스를 둘러싼 좌파 그룹과의 관련성을 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진정한 “3·1운동의 후예들”이 갖는 공통분모를 사회주의·러시아·혁명에서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3·1운동의 후예들”은 이 글에서 말하는 “반탁운동의 후예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3·1운동과 반탁운동 간의 어긋남은 김구와 이승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의 논란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1960년과 김구-추모·진상규명·통일론의 다이어그램」, 『한국학연구』, 2014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사건을 중국의 아편전쟁과 오버랩하여 사고하는 면모를 드러낸다. 그가 왜 하필 이 사건을 중국의 아편전쟁과 결부하여 사고했는가는 당시 중국이 놓인 반(半)식민지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는 동양의 맹주였던 중국이 미국과 달리 제국 열강들의 반(半)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역사적 운명의 차이를 이 한편의 에피소드로 녹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아편전쟁은 제국 열강인 영국에 저항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보스턴의 차 사건과 흡사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운명은 확연히 갈려져버렸다는 것이 양계초의 판단이다. 미국이 이 사건을 겪으며 번영의 가도를 달린 데 반해, 그에 따르면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실로 약체화”⁹⁾되어 버렸음을 탄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의 서로 다른 운명에 대한 양계초의 이러한 시선과 독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양계초는 미국이라는 창을 통해서 중국을 바라보는 비교 우위뿐만 아니라 중국과 자신을 철저히 일체화시키고 있다. 이 동일시의 양상은 비단 양계초만이 아닌 모든 피(구)식민지 지식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자의식의 일부를 이룬다. 피(구)식민자의 위치에서 발원하는 이러한 전체(국가 내지 민족)와의 동일시와 일체화는 양계초의 사례가 예증하듯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도 전체사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마술적(magic) 위력을 발휘한다. 이성과 논리 이전에 작동하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정념과 운동이 곧 내셔널리즘이 자라나는 토양이라고 한다면, 개체‘들’을 전체로 귀속시키는 이 (무)의식적인 정념과 운동의 작동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내셔널리즘을 통어하는 “집단적 동일성이 어떻게 해서 변화하는지가 아니라 허구로서의 집단 동일성이 각 순간마다 구성

9) 요시자와 세이치로(吉澤成一郎), 정지호 옮김, 2006, 『애국주의의 형성-내셔널리즘으로 본 근대 중국』, 논형, 21쪽. 동시에 무선이 중국인을 대상화하여 바라본 근대 서구의 시각 테크놀로지가 그의 민족주의를 추동했음을 지적한 레이 초우(Rey Chow), 정재서 옮김, 2004, 『원시적 열정』, 이산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또는 채구성”(방점은 필자)¹⁰되는 과정을 해명하는 일은 곧 이 정념과 운동의 (무)의식적인 작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과 직결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5·16쿠데타 직후 최초의 필화사건을 불러온 박계주의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이라는 발언이 갖는 문제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는 탁치와 애국 논쟁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정념과 운동의 작동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일체화의 마술적(magic) 효력을 그야말로 ‘탈’마법화하는 이성과 논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박명림이 “해방 직후의 국면에서 45년 8월보다 46년 1월의 폭발이 더 격렬하고 투쟁적”이라고 말했던, 이른바 “이성적 판단과 호소가 투입할 여유”를 주지 않던 탁치 논쟁의 “집단적 휩쓸림”¹¹을 지적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비록 『동아일보』의 왜곡 보도로 촉발된 것이었다 해도, 탁치 논쟁의 이러한 “집단적 휩쓸림”은 항일과 친일이라는 탈(脫)식민 과제를 극단적인 애국과 매국의 생사여탈의 투쟁으로 변모시키고 만다. 오기영이 “(『사슬이 풀린 뒤』의: 필자 첨부) 미정고(未定稿)가 발표될 때에는 이 남조선에서도 누구나 일제에 반항한 것에 의하여 혁명가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공산주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의 혁명적 가치는 무시”¹²되었다고 토로할 만큼 달라진 현실과 변화된 지형의 도래였다.

‘반탁 = 반공 = 애국애족’에 반하는 ‘찬탁 = 친공 = 미국매족’의 공식은 “찬탁하는 유파는 좌익 계열일 것이고 반탁하는 부류는 우익의 계열일 것”이라는 대립 지형을 가속화했다. “그러므로 과거 1년간의 문학 조류는 공산파와 민족파로 이분할 것”이지 “나는 무색중립이요 하는 문사가

10) 고자카이 도시야키(小坂井敏晶), 방광석 옮김, 2003, 『민족은 없다』, 뿌리와이파리, 218쪽.

11)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나남출판, 137~149쪽 참조.

12) 오기영, 2002, 「서문」, 『사슬이 풀린 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8쪽. 이 책은 1948년 성각사에서 발간된 것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서문」도 이 시기를 전후한 것임을 밝혀둔다.

있”다면 그것은 “곧이들을 수 없는 농담(弄談)”¹³⁾으로 치부되는 문단 내부의 양극화도 발 빠르게 진행되었다. 탁치 논쟁이 초래한 애국/애족과 매국/매족의 양단선은 그 사이에 존재하던 여타의 지류들을 급속하게 빨아들이면서, 애국과 매국의 선점을 위한 극단적인 투쟁을 본격화했다. 이의 한 방증이 식민지시기 대표적인 통속작가로 알려진 방인근의 「애국자」이다. 비록 이 소설은 미완으로 끝을 맺었지만, 대표적 친일파 중 한 사람인 이종영이 사주로 있던 극우지 『대동신문』에 1946년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연재되었다.

박명림이 말했듯이 “천형 같은 ‘친일파’의 굴레를 벗어버리려는 분투”(140)는 반탁운동을 더욱 격화했고 적대를 극단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정념과 운동이 맞물린 시너지 효과는 “타협의 소멸”과 “애국독점주의”(148)를 가지화했던 것이다. 이 지형 변화의 와중에, 방인근의 「애국자」가 그것도 극우지 『대동신문』의 장편연재소설로 실렸다. 이 소설을 연재하는 「작자의 말」에서, 방인근은 한 민족을 인도하는 “위대한 선장과 선부가 있어야 하니 그들은 철두철미한 정당한 애국자라야” 한다는 변으로 “그런 시대와 인물을 이 소설에 그리려”¹⁴⁾ 했음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이 소설의 제목인 「애국자」가 1949년 삼팔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는 『혁명가의 일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소설 내용을 비교하면, 전반부는 차이가 없고 미완인 후반부만이 보충되었음에도 그가 원제인 애국자를 쓰지 않은 이유는 책 「서문」을 비롯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다만 그는 “이 소설을 구상하기는 해방 후 얼마 되지 않아서”임을 피력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애국자」를 전신으로 한 것이며, 또한 “소설의 주인공을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이나 이시영 선생으로 모실까”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상 세 명과 지명(知名) 혁명가 몇 분의 편모

13) 주기순, 1946, 「문학과 정치」, 『백민』 2권 4호, 17쪽.

14) 방인근, 「작자의 말」, 『대동신문』, 1946.2.20.

(片貌)¹⁵⁾를 결합한 사실(경험)과 허구(상상)의 산물임을 책 「서문」에서 명시한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그가 말하는 혁명가는 신문연재 당시의 애국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소설이 연재되던 46년 탁치 국면에서는 ‘혁명가’가 아닌 ‘애국자’를 원제로 삼았다. 이는 사주인 이종영이 1946년 3월 6일에서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쓴 「애국과 매국」과 상호 조응하는 형태이다. 이종영은 「애국과 매국」에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외국의 연방되기를 원하여 신탁통치를 지지하여 이민족의 간섭을 받도록 노예적 대우”를 감수케 하는 “매국노”가 오히려 “해외에서 악전고투하던 애국지사를 민족반역자, 꺾쇼, 친일파 등으로 함부로 모욕”¹⁶⁾하려 든다는 애국자와 매국노간의 날선 대비를 통해 탁치 국면을 뒤흔든 극단적 “애국독점주의”에 편승한다. 박명림이 “민족애”(140)의 착종이라고 부른 이 전세의 역전은 한국 사회의 탈(脫)식민 과제인 친일과 항일의 경계를 ‘찬탁 = 친공 = 매국노’ 대 ‘반탁 = 반공 = 애국자’의 도식과 불가분하게 뒤섞어버리는 담론의 전이와 변형을 초래했던 것이다.

여기에 맞서 좌익 진영인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의 약칭)은 선전부장 겸 문학평론가인 김오성을 내세워 1946년 4월 조선인민보사에서 『지도자론』을 펴낸다. 탁치 논쟁을 계기로 우익 진영의 총공세에 맞서는 대항적 성격이 컸다. 이 글에서 김오성이 내세운 전략은 사이비 지도자와 진정한 지도자를 구분하는 것이었다. 세계사적·인류적 파토스(pathos)와 지방적·국민적 파토스를 구분한 위에서, 그는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요구되

15) 방인근, 1957, 「서문」, 『혁명가의 일생』, 평범사. 아쉽게도 삼팔사에서 나온 방인근의 『혁명가의 일생』 초판본을 찾을 길이 없다. 여러 경로를 통해 구해 보았으나 필자 역시 찾지 못했다. 그래서 위 본문의 인용은 부득이 1957년 평범사의 단행본을 텍스트로 했음을 밝혀둔다. 또한 연재된 「애국자」와의 비교도 이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다. 이 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 권보드래 선생님께도 감사 말씀 드린다.

16) 이종영, 「애국과 매국 상(上)」, 『대동신문』, 1946.3.6.

는 세계사적·인류적 파토스와 달리 지방적·국민적 파토스의 과잉이 갖는 위험성과 반동성을 지적하게 된다. 이 핵심에 자리한 것이 그에 따르면, 인민대중을 호도하는 ‘애국심’의 고취와 선동이었다. 이 사례를 그는 아직도 기억에 선연한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에서 찾고 있다. 그는 “지방적 국민적인 걱정 위에서 국민적 민족적 영웅”으로 자처하는 이들이 나타나지만, 실상 이들은 “국민 중의 소수 특권계급의 대행”¹⁷⁾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했던 것이다. “허망한 애국심”을 부추기며 신화와 전통에 기댄 복고주의와 국수주의는 이미 독일과 일본의 패전이 상징하듯이 파탄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철 지난 ‘애국심’을 방패삼는 “민족반도(叛徒)와 불순한 정치 브로커와 역사의 진행을 이해치 못하는 완고한 국수주의자”가 애국자를 참칭하는 형국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잘못된 현실에 맞서 “우리 민족을 세계사적 방향에서 재건”(6쪽)하려는 진정한 지도자를 식별하는 일이 다른 과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진정한 지도자/세계사적 개인 대 사이비 지도자/애국자의 등식은 탁치 정국에서 우익이 과상적으로 행한 “애국독점주의”에 대항하는 좌익의 수세 및 위기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었다.

좌익 우위의 저울추가 이처럼 탁치 정국을 거치며 우익 진영과 세력 균형을 맞추어가는 사이, 문맹(조선문학가동맹)과 문련(조선문화단체총연맹)으로 이어진 좌익 문단의 우위 또한 청문협(조선청년문학가협회)과 문총(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의 결성식을 통해 대공세에 나선 우익 문단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우익 문단의 젊은 친위부대로 자처한 청문협의 결성은 “모스크바 삼상결정이라는 「조선신탁통치안」이 발표되자 그들은 처음에는 이 안을 반대하고 나섰다가 당의 지령에 의해 하루아침에 태도를 표변하여 다음날은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나선 좌익

17) 김오성, 1946, 『지도자론』, 조선인민보사 후생부, 15~16쪽.

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목표로 했다. “민족진영 문화인들의 총궐기”¹⁸⁾를 캐치프레이즈로 좌익 문단과 격렬한 대결의식을 선보인 청문협의 결성은 탁치 논쟁이 지닌 정념과 운동의 마술적 효력 아래 자리한 이념의 실체를 보여준다. 브루스 커밍스의 말처럼, “적극적이고 호소력 있는 강령, 보다 우월한 조직력, 지지자를 확보”¹⁹⁾할 수 없었던 우익 문단의 열세가 탁치 정국을 거치며 청문협으로 대표되는 “반탁운동의 후예들”을 우익 문단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 “반탁운동의 후예들”은 조연현이 자신을 포함해서 칭한 “문단의 주체세력”이 되어 “첫 출발부터 해산하는 날까지 순전히 좌익”(145쪽)을 상대로 한 투쟁단체로 시종하는 최전선의 역할을 기꺼이 자임하게 된다.

청문협을 필두로 한 우익 문단의 좌익투쟁전선은 문련에 맞서 우익 문인들을 총망라하여 1947년 2월 12일에 결성한 문총도 마찬가지였다. 문총의 대표적 사업 중의 하나가 여순사건 발발 당시 ‘반란지구 문인조사반’으로 파견되어 보도집인 『반란과 민족의 각오』를 펴낸 것이었다. 정부당국이 “반란사건이 일어나자 각계각층을 움직인 중 문화계를 대표하여 문화단체총연합회간부 제씨와 문교장관, 문화국장의 연대회담의 결과”²⁰⁾

-
- 18) 곽종원, 1966, 『조선청년문학가협회』, 한국문인협회 편, 앞의 책, 142~144쪽.
19) 브루스 커밍스(Bruce Comings), 김자동 옮김,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42~143쪽.
20)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49, 『반란과 민족의 각오』, 문진문화사, 5쪽. 문인조사반의 활동과 『반란과 민족의 각오』에 대한 논의로는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선인을 들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이 책 발간 당시 문총의 명칭이 잘못 표기되어 나왔음에도 이것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문총의 정확한 명칭은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인데, 『반란과 민족의 각오』에서는 전국문화단체총연맹으로 표기되어 있다. 좌익의 조선문화단체총연맹(문련)에 맞서는 조직이 문총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혼동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 좌익의 문련이 결성되면 여기에 맞서 문총을 결성하는 식의 맞대응이 빚어낸 유사한 이름들이 경쟁한 결과였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좌익은 연맹을 반면 우익은 연맹 대신 연합회를 주로 썼다는 점이다. 즉 연합회로 통일함으로써 좌익의 뉘새를 풍기지 않으려는 나름의 교육지책이었음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 꾸려진 ‘반란지구 문인조사반’은 철저하게 관제의 스피커로 기능하며, 『반란과 민족의 각오』를 통해 좌익투쟁전선을 노골화했다. “탕탕”으로 시작되는 김영랑의 「새벽의 처형장」이나 카빈종의 「여학생 신화」를 확산 시킨 박종화의 「남행록」은 이후 벌어질 문총 주도의 ‘민족정신양양 전국 문화인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서막이나 다름없었다. 1948년 12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민족정신양양 전국문화인총궐기대회’는 좌익 문단과의 대결이 마침내 그 최정점에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 대회의 총 6개조에 이르는 「결정서」는 대한민국의 국책에 대한 재천명이자 무엇보다 제 4조의 “일부 독선적 유령(幽靈)적 문자 <인공>을 국호로 참칭하는 다수 문화인들이 각 신문, 잡지, 통신, 교육기관을 전횡좌담(專橫左擔)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통일과 성장보다 교란과 파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좌익 문인들의 북한행 엑서더스(exodus)가 1947년에 절정을 이루고 1948년 말이면 소위 중간파로 불릴 만한 인물들만이 남아 있던 시점에서, 여순사건의 여파에 힘입은 우파 문단의 기민한 움직임은 유력 중도지인 『서울신문』과 『신천지』의 탈환에 집중되었다. “모모 일간신문은 제일면에 있어 민국정부에의 협력을 가장하고 있으나 문화면에 있어서는 악랄한 파괴교란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잡지 『신천지』, 『민성』, 『문학』, 『문장』, 『신세대』와 출판업 『백양당』, 『아문각』 등은 소위 <인공> 지하운동의 총량(總量)이며 심장적(心臟的) 기관”이라는 낙인 하에 개편과 폐간이 강제되었다. 조연현이 말한 “문단의 주체세력”은 ‘민족정신양양 전국문화인총

21) ‘민족정신양양 전국문화인총궐기대회’의 「결정서」는 「전국문화인총궐기대회」, 『경향신문』, 1948.12.29와 조연현, 1977, 앞의 책, 260쪽을 참조할 수 있다. 총 6개조에 이르는 「결정서」는 남한 단정 수립에 힘입은 우익 문인들의 총공세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봉범, 2010,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가 선구적으로 논구한 바 있다.

궤기대회'를 통해 비로소 열세에 놓여 있다고 간주된 미디어 지형을 일거에 전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고, 더구나 가장 수중에 넣고 싶어 했던 『서울신문』과 『신천지』에 무혈 입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민중일보』와 『민국일보』의 연이은 폐간으로 구심점을 잃고 절치부심하던 우익 문단의 인사들로서는 『반란과 민족의 각오』에 뒤이은 '민족정신양양 전국문화인총궤기대회'로 자신들의 존재 증명을 하는 동시에 "제일면에 있어 민국정부에의 협력을 가장"하고 있으나 실상 "문화면에 있어서는 악랄한 파괴교란에 적극 협력"한다는 양두구육을 명분으로 안정적인 출판환경의 서울신문사를 획득할 결정적인 호기를 맞이했던 셈이었다. 이로써 우익 문단의 교두보가 확보되고, "'문맹'의 공공연한 한 기관지적인 존재"로 "그들의 문학 행위를 감행"해 왔다고 비판되었던 서울신문사의 진용은 문총을 중심으로 한 우익 문단의 인사들로 다시 짜여지게 된다. 동사의 사장이자 취체로 문총의 부위원장이었던 박종화가 취임하고 출판국장은 김진섭, 차장은 김동리, 문화부장은 김송이 맡는 이른바 "문총계의 문화인들"²²⁾의 대거 입성이었다.

국정교과서까지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글이 실려 있다는 공격 끝에 월북문인들의 작품이 문교부장관 안호상의 지시로 검은 먹칠로 지워진 채 일선 학교에 배포되는 등 우익 문인들의 활동은 여타 문화계 인사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이었다. "문화계의 문련(文聯)적 요소와 문총(文總)적 요소와의 투쟁은 그 모든 것이 문단 투쟁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문련'에 있어서나 '문총'에 있어서나 그러한 조직과 역량을 집결시키고 지도한 것은 다 같이 문단인들이 중심(방점은 필자)이 되"²³⁾었다는 조연현의 진술과도 합치되는 대목이다. 문단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에서 이 우익 문인들과 관련된 행보가 한국의

22) 조석제(조연현), 1950, 「해방문단 5년의 회고 4」, 『신천지』 5권 1호, 322~323쪽.

23) 조연현, 1954, 「한국해방문단 십년사(十年史)」, 『문학예술』 1권 2호, 135쪽.

문단 제도 및 매체의 구축과 재편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이 땅의 문화 정세는 처음으로 그 정당한 질서를 유지”(323쪽)하게 되었다고 자부된 서울신문사의 진용 개편은 동사의 사장이자 『신천지』 편집 겸 발행인의 요직을 맡은 문총의 부위원장 박종화와 청문협의 대표자 김동리의 행보에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박종화는 1949년 5월 3일 정간 뒤에 정부 주도의 진용 개편과 함께 그 해 6월 20일에 복간된 서울신문사 사장 겸 취체로 활동하며, 1950년 1월 『신천지』의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²⁴⁾ “무장폭도들은 험산준령 산악지대를 타고 울창한 삼림 속에서 이동하면서 전라·경상을 남하하여 게릴라식의 작전으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중략)… 심한 자에 이르러서는 농촌의 전 부락을 없애 오유(烏有)에 귀케 하니 이미 동족이면서 동포 아니라”²⁵⁾고 하는 동족과 동포 간의 첨예한 절단선이 그것이다. 동족과 동포는 비록 글자 한끝 차이지만, 이 한끝 차이는 생과 사를 가르는 아(我)/적(敵)의 구분법이 되어 민족과 애국 간의 좁힐 수 없는 간극과 균열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탁치 논쟁을 거치며 박종화의 중심 언설인 ‘민족’이 소위 ‘애국’과 어떤 식으로 접합하고 과열되어갔는지는 그 아랫세대인 김동리와 연관해서 몇 가지 검토할 만한 문젯거리를 던져준다. 정병준이 말한 3·1운동의 직접적인 후예들이라기보다 “반탁운동의 후예들”인 청문협의 김동리가 자신의 윗세대인 박종화를 어떤 식으로 견인하고 보조를 맞추어갔는지가 궁금해지는 것이다. 이 물음은 전향 좌파와 중간파가 포함된 명실상부한 우파 문인들의 조직체인 문협(한국문학가협회의 약칭)의 창설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 1949년 6월 5일의 국민보도연맹 창설과 대대적인 전향의 압박 속에서,²⁶⁾ 당해 12월 17일에 결성된 문협은 청문협이나

24) 「서울신문 진용 결정」, 『동아일보』, 1949.6.18.

25) 박종화, 1950, 「신년사-득민심(得民心)」, 『신천지』 5권 1호, 6쪽.

문충과는 달리 전 문인들의 통합체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문학단체로 출범했다. 우파 문인들에 한하지 않는 전향 좌파와 중간파 문인을 모두 아우른 문협의 출범은 곧 우익 문단의 완벽한 승리이자 그 패권의 확보였다. 김윤식은 이들을 ‘문협 정통파’로 지칭할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는데, 이 맥락에서 박종화와 김동리라고 하는 두 핵심 주역들의 행보가 의미를 갖는 것이다.²⁷⁾ 다음 장은 바로 이 두 핵심 주역들의 행보를 중심으로 남겨진 퍼즐을 맞추어가는 작업이 이어진다.

Ⅲ.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 - “반탁운동의 후예들”과 민족/순수의 타자화 전략

1945년 10월 20일 『자유신문』에 한편의 「헌시」가 발표된다. 그것은 “민족의 거인-우남 이승만 선생께”라는 시였다. 이 「헌시」는 박종화가 이승만에게 그야말로 바친 시이다. 이 「헌시」에서 그는 “염통에 뛰노는 시빨건 피는 조국광복의 정열뿐이었다. 민족을 살리려는 단심뿐이었다. 당신의 청춘도 겨레 위해 바치시었고 당신의 사랑도 나라 위해 던지시었다”

26) 「보도연맹을 결성, 전향자 지도에 기대 다대(多大)」, 『동아일보』, 1949.6.6을 참조. 문인 전향자들의 포섭과 회유 및 업포는 ‘민족정신양양 전국문화인력기대회’를 잇는 ‘민족정신양양 종합예술제’로도 표출되었다. 우리의 ‘조국혼’이라는 구호가 ‘민족혼’을 대신하는 말로 쓰이며, 전향 문인들이 동원된 38선 이북에 보내는 서신 등이 낭송되었다. 이 전향의 자기 표식과 압박을 피해 월북의 길에 끝내 올랐던 중간파 문인들이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성황 이룬 민족정신양양 종합예술제」, 『동아일보』, 1949.12.5.

27) 김윤식, 1984,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2』, 아세아문화사 및 이봉범, 2010, 앞의 논문 참조.



박종화, 「이승만 박사론」, 출처 『한성일보』

는 최대의 찬사를 이승만에게 보내게 된다. 이 「헌시」의 결과가 “당신은 새 조선의 은인(恩人)이외다”²⁸⁾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는 당연해 보인다.

이 「헌시」에 뒤이어 원편 사진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1946년 5월 21일 『한성일보』에 그는 「이승만 박사론·백대광망, 민족의 거성」을 쓴다. 이 신문기사가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가 당

대에 유행한 ‘영도자론’을 또 한편 썼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그것보다 그가 여전히 이승만을 “백대광망, 민족의 거성”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찬사를 보낸 전후 맥락이다.

그는 이승만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승만을 비난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자들의 탓으로 돌린다. “어떠한 층에서는 박사를 호명까지 하고 모욕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조선 사람의 혼을 가졌다면 박사의 과거의 업적과 해외풍상 수십 년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리라는 개탄은 곧 이승만 ‘영도자론’의 중추를 이루는 발언이다. 즉 한 마디로 “우리 민족을 지지 수호하는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는 이승만이고, 이는 “조선 사람의 혼”을 지닌 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암묵적 명령이자

28) 박종화, 「헌시-민족의 거인 우남 이승만 선생께」, 『자유신문』, 1945.10.20.

강제였다.

“조선민중이 진실로 박사께 기대하는 바는 새로이 오늘부터”라는 그의 발언은 이 “조선 사람의 혼”과 어울려 미묘한 효과를 낳는다. 그가 말하는 ‘오늘’이란 “미소공동위원회가 분열된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다. 별다른 성과 없이 제 1차 미소공위가 1946년 5월 6일 무기휴회에 들어간 시점은 남북의 분단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고비이기도 했다. 그런데 “미소공위가 분열된” 오늘부터 “조선민중이 진실로 박사께 기대”²⁹⁾하는 염원이 커진다는 진술은 박종화의 ‘영도자론’이 서 있는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조선 사람의 혼”이라는 무정형의 집단적 동일시가 이 정당성을 강화하는 식이다. 다시 말해 이승만에 대한 지지 여부 자체가 ‘민족혼’이라고 하는 일체의 반박이 소거된 불변의 심급으로 정당화되고 뒷받침되고 있는 형국인 셈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종화의 ‘민족혼’이 놓인 간단치만은 않은 언술의 층위가 존재한다. 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승만을 지지하고 옹호했다. 하지만, 그가 우익 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그의 개인적 발언은 결코 사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 그의 특정한 포지셔널리티 (positionality)가 만들어내는 ‘민족혼’의 이러한 함의와 맥락은 이른바 그가 말하는 ‘민족혼’을 일정한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는 제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시점에서, ‘민족혼’을 근거로 이승만에 대한 지지와 옹호를 절대화한다. ‘민족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러한 정언명법은 그가 내건 ‘민족혼’이 있었기에 또한 가능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따라서 좌익투쟁전선에서 여타 문화인들을 압도하는 우파 문인들의 최전선에 그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 복무했다면, 박종화의 ‘민족혼’이 지닌 소재와 주체는 여러 모로 문제적

29) 박종화, 「이승만 박사론-백대광망, 민족의 거성」, 『한성일보』, 1946.5.21.

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발언이 주목을 요한다.

도대체 민족문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어떠한 문학이나? 우리는 민족문학을 알기 전에 먼저 민족의 개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문화 또는 역사적으로 민족개념은 과학적 의미로서의 인종이란 개념과는 전연 판이한 것이다. 인종이란 기후와 지형과 혹은 혈연관계와 같은 자연적 조건의 결과로 생성된 외모의 특징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요, 민족이란 인생사회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출현된 면면한 역사적 사실에서 조직되는 것이다.

...(중략)...

8월 15일 해방의 소식이 전하자 방방곡곡의 삼천리강산에는 우리의 2세 어린이 입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40년 전의 우리의 입으로 몰래몰래 부르던 애국가가 다시 터져 나오지 않았는가? 이것이 불멸의 민족혼이요, 민족의식이요, 또한 민족문학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해방 후 오늘의 조선의 상태는 어떠한가. 누누이 내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조선민족의 한 사람으로도 가슴을 치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라. 가장 민족의식을 고조해야 할 이때이다. 우리의 2세에게 충무공의 소설을 지어 읽혀주자. 우리들의 딸에게 논개로 희곡을 써서 읽혀주자. 오달재, 윤집, 흥익한 삼학사(三學士)의 백절불굴의 의기를 시를 지어 들려주자. 지금 조선민족은 진정한 민족문화 수립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다.³⁰⁾

위 인용문에서 그는 민족문학을 말하기 전에 ‘민족’의 개념을 우선 규정할 것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민족이란 “인생사회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출현된 면면한 역사적 사실에서 조직”된다. “전통적인 심리를 기초로 하여 신화가 같고 전통이 같고 언어를 같이 하고 문자를 같이 하고 풍속습관이 같고 생활하는 풍토를 함께 보장 유지하고 자족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때문에, 비로소 집단의식이 성립되고 이

30) 박종화, 「민족문학의 원리」, 『경향신문』, 1946.12.5.

집단의식은 곧 강렬한 민족의식”으로 생성된 합집합이 바로 민족이라는 것이다. 민족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체는 “불멸의 민족혼이요, 민족의식이요, 또한 민족문학의 모태”로 모아진다.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애국가가 방증하듯이, 일제 36년을 거친 한민족의 공통경험과 집단의식이 이러한 민족혼과 민족의식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 민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모토로 한 민족혼과 민족의식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조선민족의 한 사람으로도 가슴을 치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이 당면한 위기감이 민족애에 정초한 민족의식의 고양을 긴급하게 요청한다. 이를 위해 그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2세에게 충무공의 소설을 지어 읽혀”주고 논개와 삼학사를 희곡과 시로 지어 널리 유포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진정한 민족문학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를 이처럼 민족문학의 기수로 자처할 수 있게 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민족’ 담론이 그를 진정한 민족문학의 선도자로 자처할 수 있게 했음은 물론 이와 병행된 작품들을 연이어 생산하고 발표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셈이다. 이 일련의 행보 속에서, 해방 이후 그의 첫 작품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소설 원제가 알려주는바 그대로 「민족」이라는 작품이었다.

해방 이후 그의 첫 번째 창작이자 신문연재소설인 「민족」은 『중앙신문』에 1945년 11월 5일부터 1946년 7월 22일까지 총 205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연재가 끝난 다음해인 1947년에는 단행본으로 재출간되며, 문단 안팎으로 상당한 관심과 시선을 받았다. 「민족」은 일제 말기 「전야」(1940), 「여명」(1943)의 연작이라는 평이 대다수이지만, 이 시기 그가 부르짖은 ‘민족’ 담론과 관련하여 이 작품을 단순히 연작 시리즈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일면이 존재한다.³¹⁾ 「민족」 연재를 시작하는 「작자의 말」에서, 그는

“반만년의 아득하고 오랜 역사를 가져 찬연히 아세아 동반구에 중핵을 차지했던 대조선 시운이 이롭지 못하여 …(중략)… 서른여섯 해 동안의 눈물 나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과 독립이 약속”되고 있는 이때를 맞아 “꾸준히 불의와 싸워온 우리 민족의 끓는 피, 뛰노는 맥박을 그리”³²⁾ 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 소설은 한민족의 항쟁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신문연재를 시작하는 「작자의 말」은 그러나 단행본으로 재출간된 『민족』의 「서설」에서는 그 강조점을 달리한다. 단행본의 「서설」에서, 그는 “조선 민족은 하나요, 둘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삼천만이나 조선 민족은 다만 하나다 …(중략)… 신라의 김유신은 제 민족을 안 사람이요,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민족에 곧 조국을 안 사람이다 …(중략)… 민족은 곧 나의 모체요, 나는 곧 민족의 한 분자”³³⁾라고 예의 ‘민족’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점의 차이가 갖는 효력과 의미에 관해서는 기존연구에서 별반 논의된 바 없지만, 이 달라지는 언술, 즉 ‘민족 = 민족애 = 조국애’가 갖는 ‘민족’ 담론의 양의성은 변화하는 정세와 맞물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중앙신문』은 애초 박종화의 「민족」 근대 편에 이어 이태준의 「민족」 현대 편을 실을 예정이었다. 창간을 맞아 『중앙신문』은 “해방과 독립을

31) 박종화의 「민족」은 역사소설의 장르적 성격에 입각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로 일제 말기에서 이어지는 연작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작품 내재적인 차원에서의 통시적 관점도 필요하겠지만, 당대를 가로지르는 공시적 측면이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민족」이 지닌 ‘시대착오’의 의미가 온전하게 논해질 수 있다. 이 글은 박종화의 본격적인 작품론은 아니기 때문에, 연작과 관련된 논의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32) 「연재소설 『민족』 5일부터 1면에 연재-작자의 말」, 『중앙신문』, 1945.11.4.

33) 박종화, 1980, 「서설」, 『월간 박종화문학전집 6-민족·청춘승리』, 삼경출판사, 15~17쪽. 「민족」 단행본은 1947년 예문각에서 발간되었다. 인용한 출처는 박종화전집에 실린 『민족』이다.

기념하는 2대 장편소설을 재연”키로 하고 박종화와 이태준에게 각각 원고 의뢰를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의 소설 제목이 민족으로 일치”한 까닭에 “두 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일 뿐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 두 분 작가의 제목이 민족에 일치됨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 역시 이 『민족』이라는 공동제목 하에 두 소설을 연재”³⁴⁾키로 했음을 신문지상을 빌어 전한다. 이태준도 다른 석상에서, “수년 전에 무리한 줄 알면서도 매신 지상에 그 일부로서 「사상의 월야」를 쓰다가 수십 회의 삭제를 거듭했고 결국 중단되고 만”³⁵⁾ 「사상의 월야」 3부작을 「민족」 현대 편으로 쓸 계획임을 언급하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급변하는 정세와 월북은 「민족」 현대 편을 끝끝내 좌절시켰다. 이로써 애초 근현대 편으로 예정되어 있던 ‘민족’ 시리즈는 이태준의 자의적·타의적 탈락 속에 온전히 박종화의 「민족」 근대 편만이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³⁶⁾

당초 예고했던 것과 달리 좌익 문단을 대표하는 이태준의 「민족」 현대 편이 쓰이지 않은 상태에서, 박종화의 「민족」은 신문뿐만 아니라 단행본으로 보급·유통됨으로써 「민족」은 그를 상징하는 전유물이 될 수 있었다. 이 「민족」 근대 편은 대원군 즉위부터 한일병합까지가 그 대상 시기이다. 민족의 항쟁사를 다룬다는 취지에 맞게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은 동학 봉기이다. 무엇보다 “터지는 분화구”와 “노예의 등 뒤에서” 및 “전주 함락”은 동학 봉기를 그린 이 소설의 백미라고 할

34) 「민족-본지가 자랑하는 이대 연재소설의 공동 제목」, 『중앙신문』, 1945. 11.3.

35) 「문학자의 자기비판-좌담회」, 1946, 『인민예술』 2호 10, 40쪽.

36) 「민족」 근대 편에 이어 이태준의 「민족」 현대 편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는 드물다. 하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다. 좌우를 각기 대표하는 두 대가의 작품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민족’이라는 동일한 연표 하에 써내려갈 근현대사 편의 서술내용도 분명 차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구성과 범주를 둘러싼 역사기술과 서사는 곧 당대 좌우익의 입장차를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도 했을 터였다.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요 장면을 이루는 동학 봉기에서, 박종화의 ‘민족’ 담론이 등장인물을 매개로 직설적으로 토로되고 제시된다. 전봉준이 관군에 대패하여 철군을 앞둔 시점에서 행한 연설이 그것인데, 이 문제의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기로에 서고 민족이 지옥 속에 떨어지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려는 이 위급하기 일각이 천주 같은 이때에 처해서 자기 민족의 계급투쟁만을 일삼고 집안 살림의 봉건 타파만을 주장한다면 최후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소? …(중략)… 우리는 먼저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강토를 보장(방점은 필자)해야겠소. 무엇보다도 민족이요!” 전봉준의 발언을 잇는 부하 손천민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그는 전봉준의 발언에 호응하며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앞날 오십년 뒤나 백년 뒤에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사상! 봉건 타파와 계급투쟁을 더욱 발전시키고 양양시키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이라는 존재를 말살시켜 버리고 세계 만국 무산자와 농민과 노동자는 단결하라는 구호를 높이 부를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를 일이요. 그러나 이것은 한낱 꿈이고 한낱 이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의 연설이 그러하다.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선지자의 자세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계급투쟁이 아닌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자기 민족의 계급투쟁만을 일삼고 집안 살림의 봉건 타파만을 주장”(205쪽)하는 근시안적인 시선이 아닌 이들은 공히 민족의 보존과 통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부패한 양반계급의 학정과 반상차별에 맞서 인간평등을 내건 동학 봉기의 특정 이념과 주장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낳는다. 이 연설을 끝으로 전봉준과 동학군은 마침내 관군과의 전투를 끝내고 해산 길에 오르는 “다시 귀거래”로 동학 봉기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만다.

한민족의 투쟁사로 「민족」의 한 장을 장식했던 동학 봉기는 3·1운동의 전사(前史)로 자리매김한다. 왜냐하면 박종화는 『민족』 단행본 출간을

전후해 3·1운동을 모티프로 한 「청춘승리」를 『자유신문』에 1947년 9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109회에 걸쳐 연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3·1운동과 광주학생의거였다.³⁷⁾ 이는 각도를 달리하면, 「민족」 근대 편에 이어질 예정이던 「민족」 현대 편을 월북한 이태준을 대신해서 그 자신이 완성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태준이 그리려 했던 「민족」 현대 편은 결국 쓰이지 못한 만큼 그 구체적인 실체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환국으로 끝이 나는 「청춘승리」의 해방 편과는 결을 달리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박종화는 동학 봉기·3·1운동·광주학생의거·해방의 임정 환국·대한민국 수립의 동질적 서사로 그만의 「민족」 근현대사 편을 완성했다. 이를 위해 그는 동학 봉기의 반(反)봉건과 계급투쟁 대신 ‘민족’ 담론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착오’를 의도적으로 행하게 된다. 동학 봉기를 이끈 두 지도자 전봉준과 손천민의 입을 빌려 행한 이 ‘시대착오’는 그가 주장한 ‘민족’ 담론을 과거로 재투사한 전형적인 역사의 재구성이자 과거의 현재화였다. 문제는 역사서사에 으레 따르기 마련인 시대착오가 아니라 이러한 시대착오가 무엇을 중심으로 재직조되고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과거 역사를 틀 짓는 현재의 지배적 ‘민족’ 담론이 동학 봉기의 의도적인 ‘시대착오’를 경유해 『반란과 민족의 각오』의 「남행록」에서는 여순사건의 “민족혼을 잊은 날 불행은 온다!”(48쪽)고 하는 한쪽의 배제와 분리로, 나아가 “동족이면서 동포 아니라”고 하는 극단의 “애국독점주의”로 치달

37) 박종화의 「청춘승리」는 『자유신문』에 1945년 10월 15일에서 1946년 6월 27일까지 연재된 미완성작 김남천의 「1945년 8·15」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민족」 근대 편에 이어 「청춘승리」를 「민족」 현대 편으로 삼은 박종화는 3·1운동과 광주학생의거 및 임정 환국의 민족사적 계보를 자연화한다. 이는 3·1운동과 임정 환국의 동질적 서사 대신 사회주의자를 등장시켜 새 국가 건설을 도모하는 김남천의 「1945년 8·15」의 이른바 우익 판본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청춘승리」가 갖는 이 이중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민족」에 이은 「청춘승리」의 당대적 의미감이 보다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게 되는 순환 고리는 이렇게 완성되어져간다.

“애국독점주의”를 이면으로 한 그의 ‘민족’ 담론이 지닌 배제와 분할의 역학은 “불굴의 민족혼”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선 우익 문단에서의 핵심 지위는 그의 ‘민족’ 담론이 지닌 양의성을 더욱 문제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이승만의 주장과 동류의 것으로 여겨지게 했다. 김오성이 지방적·국지적 애국심에 기댄 소위 사이비지도자/애국자의 반동성과 퇴행성을 경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종화의 “불굴의 민족혼”은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대화혼(大和魂)이 연상되고, 그가 충무공, 논개, 삼학사를 찾을 때에 우리는 이광수의 『단종애사』, 『이순신』 등의 작품이 연상”³⁸⁾된다고 하는 파시즘의 불길한 경고에 맞부딪혀야 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혹독한 문화정책 속에서는 그래도 다소나마 존재 의의가 있었으나 현 단계에 있어서는 도리어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배격해야 할 “국수주의 봉건사상의 새로운 표현”에 불과하다는 혹독한 비판을 동반하며, “불굴의 민족혼”은 외연적인 통합과 단결의 주의주장과 다르게 상황 논리를 가속화하는 체제 이념, 즉 남한 단정의 체제 이념으로 경화되어갔던 것이다.

그러니 박종화의 ‘민족’ 담론은 통합과 단결을 말하되 대결과 분리를 내포하는 양의성을 면할 수 없었다. 이 간극과 모순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알아차린 인물이 김동리였다. 자신보다 윗세대인 박종화를 문단의 얼굴 삼아 실질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행사했던 김동리는 박종화의 ‘민족’ 담론이 지닌 취약성을 일면 방어하고 일면 보충하는 이론화의 선봉에 섰다. 그는 박종화의 ‘민족’ 담론이 지닌 모순을 다른 것으로 대체·전이하고 재구성하는 일종의 파수꾼으로 기능했던 셈인데, 그것은 박종화의 ‘민족’ 담론이 채울 수 없는 문학 장의 언어와 논리를 마련하고 정교화하는

38) 이명선, 1947, 「민족문화와 민족주의문학」, 『신조선』 2, 33쪽.

것이였다. 김동리를 축으로 한 청문협의 ‘순수’ 담론은 이로부터 배태되였다. 따라서 문제는 기존연구에서 말하듯이 박종화의 ‘민족’ 담론이 있고 김동리의 ‘순수’ 담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교착되고 연루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박종화가 선 자리 못지않게 김동리가 선 자리가 이와 관련하여 필히 논해져야 할 이유이다. 이 두 사람 간의 밀접한 상보성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는 우익 문단의 자기 정체성 확립과 헤게모니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익 문단을 대변하는 박종화의 ‘민족’ 담론과 김동리의 ‘순수’ 담론 간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야말로 김동리의 ‘순수’ 담론을 끊임없이 동요시킨 원인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김동리는 박종화의 ‘민족’ 담론을 자신의 ‘순수’ 담론 안으로 재배치하는 전략과 스탠스로 우익 문단의 이론적 입각점을 만들어내려 했다. 이는 김동리라는 해방기 특유의 증상과 결부된 매개주체(mediator)의 위상과 그 역할을 되문개하는데, 김동리는 박종화와 비교해 진정한 “반탁운동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이다.

김동리의 「자전기(自傳記)」는 해방기의 어떤 한 장면에 고착된 그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다. 마치 프로이드의 원형적 장면과도 같이 반복적으로 상연되는 문제의 이 장면은 정념과 운동이 휩쓸고 갔던 탁치 정국을 담아낸다. 그 중에서도 “잊어지지 않는 데모”로 그가 포착하고 있는 장면은 “임정 지지파-우익-나 인민공화국 지지파-좌익-가 다 같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날인 정월 초하루엔 <삼상결정 지지>, <막부 결정지지>, <신탁통치안 지지> 따위의 플래카드 아래 어저께와 같은 일대 시위 행렬이 서울 거리를 메”우는 돌변의 광경이였다. “하룻밤 사이에 반탁에서 찬탁으로 정책이 백팔십도로 바”뀐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전날과 다름없이 “수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이였다. 하룻밤 사이에 반탁과 찬탁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

뀌고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 행렬에 동참하는 낯선 광경을 그는 전율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 시위 행렬에서 그는 또한 “우리가 아는 얼굴들-그들은 대개가 문학동맹에 가입되어 있는 문인들이 끼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이때부터 “좌우익의 명분도 임정 지지파(우익)와 인공 지지파(좌익)에서 반탁파(우익)와 찬탁파(좌익)”³⁹⁾로 확연하게 나뉘어졌음을 증언한다. 이 돌변의 광경을 지켜본 증언자의 위치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익이 임정 지지파에서 ‘반탁파’로 결정적인 전환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윤식도 익히 지적했다시피 임정 지지파라고 하는 느슨한 카테고리가 ‘반탁파’의 특정한 지칭 아래 ‘좌 아니면 우’로 양분되었고,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반탁파’의 자리에 들어섰던 것이었다.⁴⁰⁾ 김동리라는 또 한 명의 “반탁운동의 후예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신탁통치 절대 반대를 주장해온 사람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며, 그는 『동아일보』의 「제 5성명의 내용과 선전」에서 반탁과 찬탁(수탁)의 경계선을 긋고 이를 문단 내부로 옮겨오게 된다. 찬탁(수탁)과 대치되는 소위

39) 김동리, 1970, 「자전기(自傳記)」, 『한국삼대작가전집 3-김동리 편』, 삼성출판사, 458~459쪽.

40) 김윤식, 1996, 『해방공간 문단의 내면 풍경-김동리와 그의 시대 2』, 민음사, 68~73쪽. 김윤식은 김동리 특유의 승부 근성으로 이 장면을 해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제 말기 「신세대의 정신」에서, 이미 기존의 (구)카프계와 대립했던 김동리의 행적을 해방기와 연결시켜 바라보는 그의 해석은 일면 타당하지만, 역으로 이 사건이 지닌 어떤 과일/단절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김동리를 필두로 한 “반탁운동의 후예들”의 특정한 스탠스와 서술 전략에 주목하여 이 과일음의 당대적 효력에 중점을 둔다. 김동리를 좌장으로 한 청문협의 멤버들, 즉 서정주, 조연현, 곽학송, 조지훈 등은 소위 “반탁운동의 후예들”의 자질을 공분(共分)하며, 스스로를 이 멤버십의 일원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 글은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이후로 이어지는 연속성보다는 이들이 따로 또 같이 공분(共分)했던 한국 우파 문단의 지형 구축을 논의의 축으로 삼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며, 이 논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장을 빌려 보충했으면 한다.

‘반탁파’를 그는 여기서 “정통파”로 위치짓는다. ‘반탁파’가 그의 말대로 “정통파”라면 찬탁(수탁)파는 여기에 반한 비(非)/반(反)정통파인 셈이고, 이는 찬/반탁파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가치론적 구획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명명의 정치학을 동반한 반탁 “정통파”는 곧 문단 “정통파”의 다른 이름이 되어 그 권위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징검다리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반탁 “정통파”⁴¹⁾의 특정 포지션과 결부된 문단 “정통파”의 이러한 자기 위상은 그러나 아무런 매개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김동리라는 매개주체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이 지점에서인데, 왜냐하면 김동리라는 매개주체를 경유하여 반탁 “정통파”는 비로소 문단 “정통파”로 이월될 수 있는 문학 장의 언어와 논리를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종화의 ‘민족’ 담론이 다른 누구도 아닌 김동리에 의해 견인되었던 사정도 여기에 있었다. “애국 정열에 있어서는 독자의 폐부를 찌르고 있으나 한 개 문학 이론들로서는 통틀어 단편적이요, 체계성이 결여”⁴²⁾되어 있다는 김동리의 비판은 박종화의 ‘민족’ 담론이 지닌 문제성을 그대로 짚어내는 발언이다. 그는 박종화의 ‘민족’ 담론에 기댄 작품들을 애국문학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좌익 문단의 “계급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과 대별한다. 이 위에서 그는 박종화의 ‘민족’ 담론에 내재된 애국과 민족 간의 불합할 수 없는 차이를 오히려 명확히 하는 전략과 스탠스를 취했던 것이다. 박종화의 ‘민족’ 담론이 탁치 정국의 “애국독점주의”와 분리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는 박종화의 ‘민족’을 ‘애국’과 합치시키고 이에 걸맞는 문학 이론과 체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할 것이다. 소위 문단 “정통파”의 자기 위상에 어울리는 참된 “민족문학”의 정립을 위한 그 나름의 고투이자 모색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41) 김동리, 「제 5성명의 내용과 선전」, 『동아일보』, 1946.4.22~4.23.

42) 김동리, 1948, 「문단 일 년의 개관-1946년도의 평론·시·소설에 대하여」, 『문학과 인간』, 백민문화사, 183~184쪽.

좌익 문단의 “계급문학” 내지 1947년 문단의 탁치 파동이라 불리는 ‘응향’ 사건을 계기로 한 “당의 문학”에 맞서는 우익 문단의 조류는 적어도 1946년의 시점에서 “애국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과 “순수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으로 세분되었다.⁴³⁾ 이 두 가지 조류를 바탕으로 그는 1946년 7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순수문학의 정의」를 『민주일보』에 그리고 9월 15일 『서울신문』에 「순수문학의 진의」를 연달아 발표했다. 여기서 그가 중점을 둔 것은 ‘순수문학’의 개념 규정과 의미화였다. 그가 이토록 순수문학에 공을 들인 이유는 순수문학이 단순히 한 개인이나 분파의 입장과 주장이 아닌 우익 문단 전체를 담보해줄 준거점이 되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순수문학의 정의」를 다시 「순수문학의 진의」로 보충하는 지속적인 재교정의 작업을 해나가게 된다. 「순수문학의 진의」의 부제가 “민족문학의 당면과제로서”인 데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순수문학이 좌익 문단과 대결할 우익 문단의 이데올로기적 기치이자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순수문학에 대한 좌익 문단의 공세에 대응해가며 그가 순수문학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비판에 답하는 형식의 글을 여러 편 썼던 것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깔려 있어서였다. 1947년 『대조』의 「순수문학과 제 3세계관」 및 1948년 『해동공론』의 「문학과 문학정신」 그리고 『백민』의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와 동지의 「문학적 사상의 주체와

43) 문단의 ‘응향’ 사건이 갖는 파장은 컸다. 문단의 탁치 논쟁으로 불리는 ‘응향’ 사건은 1947년 1월 시집 『응향』을 북문예총(북조선문학예술출동맹)이 규탄하고 이를 압수 조치함으로써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건을 좌익의 교조적인 문단 박해와 탄압으로 간주한 김동리는 38선 이북으로 표상되는 좌익 문단 전체를 싸잡아 “당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된다. 그는 “문학은 현대의 신, 인민도 거부”해야 하는 “영원히 작가 자신(인류 전체에 환원할 수 있는)에 복무할 따름”이라는 “인간의 문학”으로 맞서야 함을 주장하고 그 전선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애국문학과 순수문학 간의 우파 문단 내 차이는 축소되고, 반면 “당의 문학”에 대항할 “인간의 문학”이 전면화된 것은 이러한 1947년의 정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파 문단의 언어와 논리는 동질적이지도 단일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상황과 정세의 변화에 따른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응집태였다.

그 환경」은 모두 순수문학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지속적인 재교정의 흔적이었다. 이 일련의 글쓰기 속에서, “내가 주장하여 온 것은 <문학 정신의 본령>이지 순수문학이란 표어가 아”니라는 주장이 도출되어질 수 있었다.

“순수문학이란 표어”가 자신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해방 이후 순수문학을 줄곧 주장해 왔던 그의 입장과는 배리되는 진술이다. 그는 “순수문학이란 것이 거북하면 본격문학이라고 해도 그만”이라는 말로 순수문학이라는 용어의 철회까지도 암시하게 된다. 순수와 비(非)순수의 격한 논쟁에 휘말리며 순수를 앞세운 정치주의자라는 혹독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그의 곤혹이 묻어나는 방어적 발언이기도 하지만,⁴⁴⁾ 그가 순수문학을 철회할 수 있다고까지 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한몫을 차지했다. “문학정신의 본령이 인간성 옹호에 있다고 볼 때 오늘날과 같은 민족적 현실에서의 인간성의 구체적 양양은 조국애나 민족혼을 통하여 발휘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의 진정한 문학적 구현이야말로 문학 이외의 목적의식에서 경화한 것이 아니라면-참된 순수의 정신”⁴⁵⁾과 통한다는 이른바 박종화의 ‘민족’ 담론을 의식한 원심력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1946년에 애국문학과 순수문학을 구분하며 우파 문단의 내적 차이를 피했지만, 순수문학을 축으로 한 우파 문단의 자기 정립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좌파 문단에 대응할 “조국애와 민족혼”의 당대적 이념을 순수문학의 틀 안에서 해소해야 했다.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현실의 본질을 문학적 세포 속에 구현”한다면, “순수성의 본질”(151쪽)에 상

44) 김동리의 순수문학에 대한 좌익 문단의 공격 수위는 대립이 격화될수록 고조되는 양상을 띠었다. 김남천의 「순수문학의 제태」, 『서울신문』, 1946.6.30과 이원조의 「허구와 진실」, 『서울신문』, 1946.9.1을 포함해 김병규와 김동석이 개입한 논전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기돈, 2010, 『김동리 연구』, 소명출판을 참조할 수 있다. 그의 논의에 덧붙여 김동리가 순수문학을 본격문학과 민족문학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을 그의 달라지는 발화 위치와 연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해두고 싶다.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이후를 기약한다.

45) 김동리, 1948, 「문학과 문학정신」, 앞의 책, 152~153쪽.

응한다는 순수문학론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 원인이었다. 순수문학이 본격문학과 민족문학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그 진자 운동을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문학 이외의 목적의식에서 경화한 것이 아니라면”의 단서를 붙여 좌익 문단의 계급과 정치 우위의 문학과 차별화를 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순수문학이 놓인 자리 역시 결코 안정적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익 문단에 대한 좌익 문단의 공세가 박종화가 아닌 김동리에게로 쏟아졌던 것도 이 맥락에서는 필연적인 사태였다. 가령 “청년문학가협회에 적을 둔 김동리 씨가 또한 반탁당의 파이터(fighter)”라는 비아냥거림이라든지 “소설에서 못 다한 반탁운동의 문학적 임무를 평론으로 보충”하는 “8·15 이후 누구보다도 전투적 정치문학자”⁴⁶라고 하는 때로 원색적인 힐난은 그가 놓인 “반탁운동의 후예들”이 깊어져야 할 상흔이자 분열상이었다. 이 지울 수 없는 상처 위에서 우익 문단은 좌익 문단의 제거와 함께 번성하고 공고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46) 김영석, 1947, 「매국문학론」, 『문학』 4, 8~9쪽. 동지에 실린 김영석의 「매국문학론」과 김상동의 「테러문학론」은 기존의 공격과 비교해 발언의 수위가 대단히 거칠고 원색적이었다. 이는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는 시점과 맞물려 공세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 데 따른 결과였다. 이 공격의 일차적 타깃이 김동리였다는 점은 그가 그만큼 우익 문단의 핵심 거두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단순히 그가 우익 문단의 핵심 논객으로 활동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반탁운동의 후예들”의 좌장이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반탁당의 파이터”가 가리키는 것도 정확히 이 지점일 터이기 때문이다.

IV. 우파 문단의 문학사, 그 정전화의 욕망- 맺음말을 대신하며

김동리로 대표되는 “반탁운동의 후예들”은 이후 어떤 행로를 걸었을까. 김동리는 1949년 9월 1일에서 1950년 2월 26일까지 총 156회에 이르는 「해방」을 『동아일보』에 연재한다. 「해방」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체제 이념과 합치되는 두 개의 세계(진영)론을 펼치며 결국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 두 개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고 “어느 하나의 세계에 가담하여 다른 한 개의 세계와 싸우는 것”⁴⁷⁾밖에 없음을 주인공인 이장우의 입을 빌려 웅변한다. 「해방」은 끝내 완결되지 못한 채로 남았지만,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이야기된 이러한 자기 귀속의 표지는 「해방」의 완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의 입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후 문협외 부위원장, 예술원 파동의 주역으로 한바탕 흥역을 치른 끝에 예술원 회원 피선, 한국 유네스코 위원, 아시아재단 주최의 자유문학상 수상, 5·16쿠데타 후 통폐합한 문협의 부이사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한국소설가협회장 등 화려한 경력으로 한국 문단을 주도했다. 김동리의 이러한 주류의 자리는 “반탁운동의 후예들”이 대한민국 수립과 더불어 가질 수 있었던 보상과 명예였다.

1949년 9월호 『신천지』에 조석제라는 이름으로 「해방문단 5년의 회고」가 게재된다. 1950년 2월에 총 5회로 마무리된 이 연재는 김동리와 함께 “반탁운동의 후예들” 중 한 명인 조연현의 작품이었다. 조연현의 「해방문단 5년의 회고」는 좌익 문단이 거세된 대한민국의 우파 문단의 승리의 표식이자 이들에 의한 평가가 한국 문단의 지배적인 인식과 시각이

47) 김동리, 「해방 149」, 『동아일보』, 1950.2.9.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 “반탁운동의 후예들”과 한국의 우파 문단

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조연현은 1945년부터 1949년 8월까지의 기간을 “혼란기”, “정치주의문학의 전성기”, “투쟁기”, “정돈기”, “재건기”로 나누고, “혼란기”와 “정치주의문학의 전성기”를 좌익 문단의 공세와 활보로 반면 “투쟁기”를 거친 “정돈기”와 “재건기”를 우익 문단의 반격과 승리로 기술한다. 이러한 문단사의 자기-충족적 기술은 곧 문학사의 기술로 전치되어 그의 『한국현대문학사』(1969)로 결실을 맺게 된다.

이처럼 문단사가 문학사로 이월되어 기술되어지는 한에 있어서, 한국 문학사는 이 문단사의 주역들이 써내려간 자기 정당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학 제도와 매체 및 교육 시스템이 맞물린 이러한 재생산의 과정은 우리의 무/의식을 잠식하며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바깥에서 호명되지 않은 작가와 작품들의 존재는 한국 문단사가 지워버린 어두운 이면이다. 우파 문단의 구축과 문학사 및 정진화의 욕망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 움직여갔던 출발점에, “반탁운동의 후예들”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이유이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닌 현재형의 사건으로 진행 중이기에 말이다.

참고문헌

1. 사료

- 김광주, 「애국(愛國)·애전(愛錢)·애당(愛黨)·애권(愛權)」, 『경향신문』, 1960.5.5
- 김동리, 「제 5성명의 내용과 선진」, 『동아일보』, 1946.4.22~4.23
- _____, 1948, 『문학과 인간』, 백민문화사
- _____, 「해방 149」, 『동아일보』, 1950.2.9.
- _____, 1970, 「자전기(自傳記)」, 『한국삼대작가전집 3-김동리 편』, 삼성출판사
- 김선태, 「독설의 변명」, 『경향신문』, 1961.1.17.
- 김영석, 1947, 「매국문학론」, 『문학』 4호
- 김오성, 1946, 『지도자론』, 조선인민보사 후생부
- 박계주, 「여수(旅愁) 170」, 『동아일보』, 1961.11.28.
- 박연희, 「고(故)박계주형의 영전에」, 『동아일보』, 1966.4.9.
- 박종화, 「현시-민족의 거인 우남 이승만 선생께」, 『자유신문』, 1945.10.20
- _____, 「이승만 박사론-백대광망, 민족의 거성」, 『한성일보』, 1946.5.21
- _____, 「민족문학의 원리」, 『경향신문』, 1946.12.5
- _____, 1950, 「신년사-득민심(得民心)」, 『신천지』 5권 1호
- _____, 1980, 『월탄 박종화문학전집 6-민족·청춘승리』, 삼경출판사
- 방인근, 「작자의 말」, 『대동신문』, 1946.2.20.
- _____, 1957, 『혁명가의 일생』, 평범사
- 오기영, 2002, 「서문」, 『사슬이 풀린 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명선, 1947, 「민족문학과 민족주의문학」, 『신조선』 2
- 이종영, 「애국과 매국 상(上)」, 『대동신문』, 1946.3.6
-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49, 『반란과 민족의 각오』, 문진문화사
- 조석제(조연현), 1949~1950, 「해방문단 5년의 회고」, 『신천지』 4권 9호-5권 2호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 “반탁운동의 후예들”과 한국의 우파 문단

_____, 1954, 「한국해방문단 십년사(十年史)」, 『문학예술』 1권 2호

_____, 1977,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조연현 문학전집 I』

주기순, 1946, 「문학과 정치」, 『백민』 2권 4호

한국문인협회 편, 1966, 『해방문학20년』, 정음사

2. 논저

공임순, 2014, 「빈곤의 포비아, 순치되는 혁명과 강패/여공의 젠더 분할」,
『여성문학연구』 32

김윤식, 1996, 『해방공간 문단의 내면 풍경-김동리와 그의 시대 2』, 민음사

박명립,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나남출판

이봉범, 2010,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

정병준, 2015, 『현 엘리스와 그의 시대』, 돌베개

홍기돈, 2010, 『김동리 연구』, 소명출판

고자카이 도시아키(小坂井敏晶), 방광석 옮김, 2003, 『민족은 없다』, 뿌리와
이파리

레이 초우(Rey Chow), 정재서 옮김, 2004, 『원시적 열정』, 이산

요시자와 세이치로(吉澤成一郎), 정지호 옮김, 2006, 『애국주의의 형성-내
셔널리즘으로 본 근대 중국』, 논형

Abstract

The Position of Park Jong-hwa and Kim Dong-ni, “the Descendants of anti-trusteeship(bantak: 反託) movement” and Right-wing literary field in Korea

Kong Im-soon

The first serious slip of the pen(pilhwa: 筆禍) event occurred immediately after 5·16 Military Coup. Its target was the Bak Gye-ju's novel “Yeosu(旅愁)” that serialized in the Dong-A Ilbo. The scene in question was support of trusteeeship(chantak: 贊託) and the review of patriot figure represented Rhee Syng-man. But issues raised by the Bak gye-ju due to revolutionary mood in the April 19 sank beneath the surface again being dealt a severe blow by May 16th Military Regime. This case showed an internal injury that has been deeply rooted in Korea. It was trusteeeship(takchi: 託治) and patriotic debates in 1946 that had been sweeping collective passions and movement, this paper seeks to reveal that self-identification of right-wing literary field in Korea has been made in the middle of trusteeeship(takchi: 託治) and patriotic debates in 1946.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the concept of “the descendants of anti-trusteeship movement” aided to “the descendants of March First Movement” of Jung Byung-joon. “The descendants of anti-trusteeship movement” is a term that should be noted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origin of right-wing literary field in Korea. Because “the descendants of anti-trusteeship movement” beyond the “the descendants of

March First Movement” began to reconstruct language and logic in literary circles in opposition to left-wing literary field in Korea. The Meaning of Park Jong-hwa’s ‘Nation’ discourse and Kim Dong-ni’s ‘pure’ discourse were also moving in this context. While this paper is trying to study that Kim Dong-ni, a true “the descendants of anti-trusteeship movement”, was continually rewriting his ‘pure’ discourse in addition to lead Park Jong-hwa’s ‘Nation’ discourse, also reexamines reflectively that the history of right-wing literary field in Korea has been still living through literature system and the media and current education system with the desire of history of literature and composing canon.

Keywords: “the Descendants of anti-trusteeship movement”, trusteeeship(takchi: 託治) debate, patriotic discourse, Park Jong-hwa, Kim Dong-ni, Jo Yeon-hyun, National Literature, Pure Literature, the serious slip of the pen event of Bak gye-ju, the history of right-wing literary field in Korea, the desire of composing canon, the National Federation of Cultural Groups(Jeonguk Munhwadanche Chongyeonhaphoe), the Young Literary Men’s Society (Cheongnyeon Munhakka Hyeophoe)

